

■ 인터뷰 ■

대를 이은父子소방관 家族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생각하도록 근무



임재창
포천소방서 예방과장

“소방관으로 근무하면서 큰 일을 다 치러본 것 같다. 특히 공동주택 중앙시장 화재사건과 구리소방서 경리계장 재직당시 당직관으로 근무할 때가 많이 와 주조에 나왔던 소방관이 목숨을 잃어 당직관으로서 연대책임을 지고 장례를 치르면서 많은 것을 배우기도 했다.”

포천소방서 임재창(58·사진·지방소방령) 예방과장은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에서 태어나 이곡초등학교, 동남중학교, 의정부공업고등학교 토목과를 졸업하고 1971년부터 1976년까지 포천시청 토목직으로 근무하다가 1977년도에 대립산업으로 자리를 옮겨 1

년 근무하다가 다시 소방직 시험을 치러 1979년 1월 발령을 받아 현재까지 30여년 동안 소방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임 과장은 1남2녀를 두었는데 아들이 지난해 9월 소방에 입문해 부자소방관으로 알려져 있다. 임 과장은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같은 직업을 선택한 것에 대해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아들에게 임 과장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 직종에 의지하고 도움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매우 보람된 일이라고 알려 주니 도전해 보겠다고 하여 입문하게 되었다고 한다.

임 과장은 소방관으로서 근무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한다. 내가 안전해야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간과하면 사고가 발생한다.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소방업무는 시작했으나 요즘에는 최첨단 장비는 물론 안전장비, 장구가 개인별로 지급될 정도로 발전했다. 생명과 직결되는 이러한 장비는 내구연한이 지나면 바로

바로 교체하고 있다.

예방과 업무는 화재예방 차원의 감사를 주목적으로 소방시설 완비 독려, 위험물 허가 등 민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소방감사업무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 14명의 직원이 포천시 전 지역을 담당하고 있다. 추석 전에 관내 2천600여개 영세공장에 대한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여 100여개 업체에 행정명령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11월부터는 월동기 방화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다.

임 과장은 직원들에게 사무실을 방문한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응대할 것으로 강조하여 교육한다고 한다. 친절하게 하면 모든 민원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임 과장은 고향에서 근무하면서 고향사람들로부터 소가라직 받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으며 정년퇴직후에도 우리에게 편안하게 해주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 임 과장은 직원들이 직장에 나와 편안한 분위기에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 다른 지역에 있는 소방관들이 포천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을 생활신조로 살아가고 있는 임 과장은 우리사회가 어렵게 일하고 있는 소방관들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임 과장은 1979년 1월 5일 지방소방사시보, 1980년 10월 14일 지방소방사, 1986년 2월 18일 지방소방교, 1990년 3월 15일 지방소방장, 1992년 5월 25일 지방소방위, 1996년 9월 25일 지방소방경, 2005년 11월 4일 지방소방령으로 승진했으며 2007년 5월 21일 포천소방서에서 부임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인터뷰 ■

‘몸의 불균형을 바로 잡아 주는 것’

75개의 동작을 연결해 교육 2시간 소요



한서영

포천여성회관과 소흘읍 솔모루문화회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요가를 교육하고 있는 몸의 불균형을 바로 잡아 주는 것(몸의 불균형을 바로 잡아 주는 것)에 참 좋은 쉬운 요가인 한서영(58·사진) 원장은 20여년간 요가와 에어로빅을 해왔다.

한 원장은 요가를 함으로써 좋은 점에 대해 바른 체형으로 교정을 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지구의 중력에 따라 사람의 몸은 위에서 아래로 처지게 되어 있으며 한쪽 사용으로 인한 치우침이 가져다주는 불균형이 심한데 이를 바로 잡아주는 것이 요가다. 사람이 앞으로만 걸지 뒤로 걷는 사람은 없다. 여기에서 오는 불균형은 척추가 비틀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이 상하불균형이다. 따라서 하체가 약해지고 상체는 비만으로 나타난다.

한 원장은 ‘필리피나사 아스탕가’ 요가를 배워 전수하고 있다. 5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요가는 파타비조이스 라는 사람이 나름대로 요가의 체계를 세워 몸의 독소를 배출하고 불균형을

바로잡고 옷차이 호흡을 통해 몸의 균형을 세운다.

옷차이 호흡이란 몸통전체로 호흡하는 것을 말한다. 흔히 심호흡이라고 할 수 있다. 동작과 호흡의 일체를 만들어 가는 훈련이 필요하다.

요가의 동작은 여러 가지다. 대개 75개의 동작을 연결해 교육하고 있다. 75개의 동작을 다 하려면 최소한 2시간이 소요된다. 2시간 후에는 몸이 날아갈 듯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포천에는 이 몸의 불균형을 바로 잡아 주는 것(몸의 불균형을 바로 잡아 주는 것)이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통 4~5개월 정도 하면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이다.

한 원장은 “갈수록 사회구조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있어 몸의 불균형이 지속된다. 때문에 요가를 통해 몸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노아의 집 방문 추석맞이 송편만들기

한화리조트 산정호수 직원들 명절의 따뜻함 나눠

한화리조트 산정호수(본부장 조용하)는 9월21일 노아의 집 장애시설을 방문하여 추석맞이 사랑의 송편 만들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추석을 맞이해 노아의 집 장애아동들과 함께 송편을 만들고, 담소를 나눔으로써 사회적 소외되어 있는 아이들에게 명절의 따뜻함과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시간이 되었다.

한화봉사자와 함께 고사리 손으로 송편을 만들고, 산적을 끼우며, 부침도 만들었으며 2층, 3층 방별로 만든 송편과 전으로 컨테

스트를 하여 조용하 본부장과 노아의집 원장이 심사를 해 준비한 산물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조용하 본부장은 아이들에게 추석명절의 의미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으며, 서로가 만든 음식을 다 함께 시식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한화리조트·산정호수는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함께 하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한화리조트 산정호수는 9월21일 노아의 집 장애시설을 방문하여 추석맞이 사랑의 송편 만들기 행사를 실시했다.

자유기고

시택 가는 길의 영상

휘영청 밝은 보름달을 기다리는 것이 한가위란다. 언제나 지나가는 계절 속에 묻혀가는 것이지만 그래도 그런 날이 기다려진다.

결혼해서 지금까지 지내온 23여년의 한가위이지만 언제나 가는 길은 설레임보다 무거운 마음이 앞선다.

맨 처음 시택 가는 길은 왜 그리 복잡했지...기차표 구하는 새벽잠 못 자고 서울역에서 줄 서서 기다리던 생각... 아이들 어려서 기차 타면 왜 그리 울고 힘들게 하는 지...

오징어 한 마리 사서 다리 쪽 찢어 입에 물어주면 얼마간 조용해지니 우리 아이들 얼마나 잔것을 잘 빨던지..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절로 난다.

또 한번은 차표를 구하지 못해 입석으로 가게 되면 기차통로에 신문지 깔고 앉아 있다가 물건 파는 아저씨를 지나가면 다시 일어나기를 수십 번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하면서

왜이리 시간이 더디게 가는 건지.. 기차 안이 너무 더워 땀 흘리며 우리 아이들 못 하나 하나 벗기고 보니 뺨뺨 거러머 잠자는 모습은 어찌 그리 천사 같던지...

기차에서 내려서 다시 버스타고 아저씨 타고 가면 그 옛날의 풍경들 속에서 시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 본다.

논두렁이 이리 저리 구불거리던 것도 모두 일렬로 정리되어 시골 맛은 없어졌지만 그래도 시골의 넉넉함은 지금도 여전하다.

이제 새벽을 열어 시택 가는 길은 불편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부모님 살아 생전 열심히 찾아보고 환한 모습으로 가족과의 화합을 열어 보려 한다.



김순희
포천신문주부동맹부담부담장



웰빙 부사의(不)思意

귀성(歸省)과 귀향(歸鄉) 3

설과 추석이 되면 민족 대이동이 시작된다. 귀성(歸省)과 귀향(歸鄉)하는 사람들 때문이다. '귀성'이란 성묘(省墓)를 말하는 것이고 '귀향'이란 고향방문(故鄕訪問)을 말하는 것이다. 성묘는 주로 음력(陰曆)으로 8월 추수에 이루어진다. 물론 설에도 성묘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8월 추수에 성묘를 한다. 벌초(伐草)와 겹해서 찾아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벌초는 음력으로 7월 보름에 한다. 8월 추수 할 달 전에 하는 것이다. 이 때 벌초를 못하는 사람들은 추석 성묘 때 겹해서 하기도 한다. 특히 공동묘지에 조성(厝上)을 모신 사람들은 추석 당일에도 벌초를 많이 한다.

'설'에는 주로 고향을 찾는다. 부모님을 비롯한 선친(先親)과 가족(家族)들이 있기 때문이다.

귀성은 省墓, 귀향은 고향방문을 말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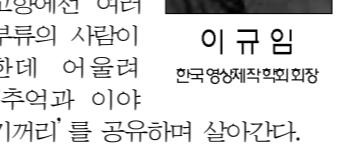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과 일가친척(一家親戚)을 그리고 어린시절 같이 뛰놀던 고향동무들과 정겨운 이웃들이 있기 때문이다. 개구쟁이 시절 따지치고 팽이 돌리며 놀던 추억(追憶)과 밤새도록 나누어도 싫증나지 않는 이야기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고향(故鄕)이 거기 있기 때문이다.

고향이란 무엇인가? 물론 나를 낳아주시고 '부모님'과 내가 자란 '시골동네'를 말하는 것이다. 그것만은 설명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한다. "고향이란 마음이 머무는 곳이다." 내가 태어났더라도 그곳에 이미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일찍 그곳을 떠나 어릴 적 '추억'과 '이야기거리'가 없다면 그곳은 이미 고향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2의 고향'이란 말을 흔히 한다.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부모님'이 계시고 정다운 '이웃'이 있고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추억'이 서려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같은 곳을 사람들은 '제2의 고향'이라 부르는 것이다.

철학적으로 볼 때 고향이란 인(仁)수(仁綬)와 효신(孝神)과 비견(比肩)이 있는 곳이다. '인수'란 친어머니를 말하는 것이다. '효신'이란 계모(繼母)를 말하는 것이고 '비견'이란 형제자매(兄弟姊妹)나 일가친척 또는 이웃을 말하는 것이다. '인수'란 친어머니처럼 무조건 '나'를 살리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이다. 진자리 마른자리 같이주시는 어머니! 자식과 가정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시는 어머니! 그게 바로 인수다. '인수'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향'을 찾는 것이다. 거기에 '인수'가 있기 때문이다.

효신(孝神)이란 계모처럼 가식(假飾)과 속인수로 가득 찬 그 무엇을 말하는 것이다. 고향에는 '인수'만 있는 것이 아니다. '효신'도 있다. '나'를 도와주는 그 무엇이 있는가 하면 '나'를 속이고 배반하려 드는 그 무엇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독식(獨食)이라 이웃사촌을 말하는 것이다. 형제자매나 이웃사촌은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고 공동목표를 위해서 협력한다. 그리고 독식(獨食)하지 않는다. 먹을 게 생기면 나눠먹는다. 이것이 '비견'의 원리

(原理)이다. 그런데 가끔 독식하려는 사람이 나타나 문제가 되곤 한다. 이처럼 고향에선 여러 부류의 사람이 한데 어울려 '추억'과 '이야기거리'를 공유하며 살아간다.



이규임
민국행정직학원원장

'성묘(省墓)'란 조상의 무덤을 찾는 것이다. 고인을 추모(追慕)하고 기리기 위한 것이다. 고인을 추모하는 것은 고인의 정신(精神)을 추모하는 것이다. 마음을 추모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고인의 마음에 비추보는 것이다. '고인의 마음과 정신'을 이어받는 것이다. 그 정신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마음이 중요하고 정성(精誠)이 중요한 이유이다. 고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한다. 성묘가 중요하고 귀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고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도 돌아선 다음이 아니라 살아생전에 그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새겨들기 바란다.

자유기고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이동면)

현대를 살아가면서 풍요속의 빈곤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100대 대그룹 간부이사 1인 월급이 2억5천만원에 육박한다. 100대 기업 1억달러 이상의 간부이사들이 수 없이 많다. 하지만, 요즘 농촌 경제는 최악의 바닥을 헤매고 있다. 이로 인해 생계형 대졸이 늘고 집을 담보로, 땅을 담보로 한 대출은 이미 지급불능상태에 놓여있는 시골 실정이다. 이젠, 농사지어 재를 가르칠 수 있는 시대는 먼 옛날의 이야기로 되어버렸다. 그렇다고, 장사나 하며 먹고살겠다는 생각도 어리석은 사업수단이 되어 버렸다.

농사, 장사, 사업 등 모든 것들이 불투명한 농촌생활. 하지만, 대도시 1년에도 몇 억씩 오른 아파트와 삼가를 사지 못하고, 분양 받지 못한 사람들이 바보 취급된다. 대기업들은 거미줄 같은 조직망을 통해 돈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씹아먹었다. 대도시의 투자와 리턴은 나랏님들의 눈에 거품이 내다 뽐는다. 하지만, 1년 소득이 도시의 월급급이의 한달치도 미치지 못한 시골은 상상도 못한다.

돈을 많이 벌여 땅 투기하다, 해외를 내 집 드나들듯이 하고, 자식과 가족을 송두리째 내다 팔아 버린, 돈 많은 높은신 분들의 발버박에 때도 되기 힘든 실정이다. 자리 좋고 목 좋은 곳은 이미 나랏님들의 수중에 다 들어가버렸고, 못

돈 벌어드린 높은신 분들의 손아귀에 다 내어주었다. 그렇다만, 이젠 농촌도 높은신 분들의 종로락이라도 해야 먹고 살 수 있을텐데, 그렇지도 못하게 되어버렸다.

왜? 이 높은신 분들은 투자하여 굳이 위험한 사업을 하지 않는다. 공장보다는 땅투기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손해보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땅 없이, 돈 없이, 일거리 없이, 그저 호구지책으로 입에 풀칠 할 정도로 살아가고 있는 농촌 현실에서, 나랏님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심각한 농촌 파탄으로 인해, 도미노현상이 일어나 농촌 없는 한국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물론, 정부에선 농촌 살리기 일환으로 그린투어, 산촌마을 만들기, 농어촌종합개발사업 등 정성을 쓰는 듯 하지만, 현실은 당장 배가 고파 죽을 지경에 농촌경제에 각 개인의 수입이 직결되지 않는 즉, 봉사와 헌신으로 목표로 한 지원사업에 지나지 않고 있다. 도시에 집중된 대기업과 공기업 등 많은 기업들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하면서 직접 수입과 직결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몇 천%씩 대출해주는 특혜를 주면서, 농촌에는 쥐꼬리 지원으로 봉사와 헌신을 강요하는 행정이야말로, 지금까지 정부만 믿고 겹소하며 땅을 일구어 온 상당 수의 선

량한 농민, 소상공인 등이 설움을 잃어버렸다.

공기업은 1년에 몇 천억원의 적자를 내는데도 몇 백%씩 너스레와 성과급을 지급하였다. 이는 보도 속에 도시민의 과대한 특혜가 몇 십년을 가계에 빚을 지고, 망해 가는 농민과 농민들에게는 실질적인 소득의 눈을 감고 있는 나랏님들, 이제라도 아니면 차기 정부에서라도 이대로 농촌을 내버려 두지 말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아울러, 이 지역의 시급한 이동면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원활한 농촌경제를 폐쇄 또는 이전하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업장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도마치 계곡을 활용한 등산로 및 산책로를 개발하여, 자연환경을 통한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라. ▶백운계곡의 상인과 주민들의 삶을 위해 획기적인 대책과 지원책을 위한, 지원방안이 우선되어야 한다. ▶도시민을 유치할 수 있는 택지개발(증빙지 및 운운지, 시위지) 개발을 늘려야 한다. ▶젊은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지 않도록, 각종 지원과 자녀해택 및 생계유지대책 등을 해결해야 한다.



김형식
포천신문주부동맹부담부담장

자유기고

20일간의 소중한 만남

사회복지 행정학 졸업반인 나는 실습을 하기 위해 부지런히 자택의 집 양로원을 찾았다. "안녕하세요!" 아침 식사 후 어르신께서는 정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다. 음악에 맞추어 국민체조를 시작으로 하루가 시작된다. 오전 간식으로 우유와 요구르트를 제공해 드리는데 평소소 말없이 웃으신 조재학 할머니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장대섭 선생님께서 "우유주세요"라고 말씀하시어 우유를 드린다고 하시며 큰소리로 "우유주세요"라고 하신다. 그런 할아버지께서는 하루 종일 말이 없었지만 멧물체조 프로그램시간에는 북을 치며 어리랑도 잘 부르신다. 최봉아 할머니는 건강화로 복수가 차서 배가 부르시고 발이 소복하게 부어서 누워 계시며 화장실도 엉금엉금 기어 가셔서 불일

보신다. 할머니께서는 요양원으로 가셔야 하지만 양로원에 정이 들어 계시며 의치를 세척해 드리고 식사로 죽과 간식을 생활일로 가져다 드려야 했다. 누워계신 할머니는 항상 반갑게 웃으시며 나를 맞이주시고 아프시기 전에 생활하던 이야기를 하시며 다양하고 고통은 없다고 하신다.

추석명절을 앞두고 소흘 여성소방대에서 목욕 봉사자를 모셨다. 깨끗이 목욕을 하신 할머니께서는 개운하시라며 좋아하셨다. 꽃방에 계시는 박삼애 할머니께서 실수를 하셔서 양치선 선생님과 할머니를 다시 목욕시켜 드리는데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며 사탕이 있으면 주고 싶는데 없다고 하시며 빙그레 웃으셨다. 나는 시어머니 두 분을 모셨지만 그때는 시설에서 자원봉사 생각을 하지 못했

다. 집에 계시시며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주위에서 말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어르신과 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시어머니께서 생전에 계셨다면 목욕도 시켜드리고 말벗도 해드리며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하며 머니로서 잘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이 남는다.

오후에 자혜원집 양로원 가족들은 동그렇게 둘러앉아 송편을 빚었다. 서울이 고향이신 이숙희 원장님 송편, 평양이 고향이신 김은경 선생님 송편, 가산이 고향인 나의 송편을 정성들여 빚어서 어르신들께 간식으로 드릴 것이다.

20일간 자혜원에서 생활하는 동안 때로는 즐기고 힘들며 어르신 행동에 이해가 가질 않았지만 나의 손길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진심 어린 관심을 갖고 대해 드렸다. 고생한다며 100원을 주시며 커피마시는 할머니, 밥을 한 움큼 주시는 할아버지, 사탕을 주시며 집에 아이를 가져다주시는 유광덕 할머니의 손길 두고두고 기억 할 것이다. "할머니, 할아버지! 송편 맛있게 드시고 보름달처럼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세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사랑 사자고 꼭 오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추석명절을 앞두고 자혜원집 양로원 가족들이 동그렇게 둘러앉아 송편을 빚고 있다.